

〈토론 3〉

가칭 ‘학교급식 관리사’ 제도

김 병 조 편집국장
(식품환경신문)

1. 학교급식 인적자원 선진화 방안

〈문제 제기〉

- 학교급식은 700만 명이 넘는 미래의 국가 주역인 학생들이 12년간이나 공급 받는 서비스로 일반 외식이나 단체급식에 비해 매우 중요.
- 특히 성장기의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에 전통음식의 중요성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그러나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직무가 영양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불균형 초래.
- 영양사 집단과 조리사 집단간의 집단이기주의 성향으로 갈등 요소 상존.

〈해결 방안〉

- 조리사 직무의 법제화를 통해 영양사에게 집중된 직무의 분산화 및 전문화 유도.
- 나아가 ‘(가칭) 학교급식 관리사’ 제도를 도입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제 시도.

2. 학교급식 운영체제 개선방안

〈문제 제기〉

- 직영 및 위탁급식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일관성 부재.
- 교육당국의 직영전환 유도 및 일부 정치권의 강제 직영 전환 입법화 시도.
- 위탁업체의 반발 및 저항으로 인한 급식의 질적 저하와 대형사고 위험성 잠재.

〈해결 방안〉

- 예측 가능한 정책발표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
- 학교의 자율선택권 보장
- 직영과 위탁의 장점을 탄 절충형 개발 보급.

3. 기 타

-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방안
- 급식 단가 현실화 방안
-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